

“학업 중단 막아라”

지역 대학들 장학금 늘리고 취업·창업 지원

광주교대, '부모 실직·파산' 학생에 100만원

광주여대, 가정 형편 어려운 500명 장학금

조선대, '권학 장학금' 학과 성적 70% 이내로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이 경기 불황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해 복지 관련 장학금을 늘리는 등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불황이 깊어지면서 부모 실직이나 가정 경제 파탄 등으로 학생들이 위기에 처하자 공적부조 차원의 장학금을 늘리는 한편 다양한 취업 및 창업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광주교육대는 가장이 실직 또는 파산한 경우 및 소년·소녀가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당 100만원선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교대는 조만간 장학금 수혜 학생들을 선정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광주여대는 성적우수자에게만 지급하는 '변화장학금'을 제외한 동문회 또는 각종 단체에서 후원하는 장학금의 지원 조건에서 '성적 우수'라는 항목을 '가정이 어려운'으로 대체

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학기부터 가정이 어려운 학생 500여명을 학과장 추천을 토대로 선발해 40~50만원 가량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선대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학생에게 주는 '권학장학금'의 조건인 '학과 성적 50% 이내'를 '70% 이내'로 완화했으며,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등에 지원하는 '복지학생장학금'도 '학점 3.0점 이상'을 '2.0점 이상'으로 낮춰 수혜 대상을 늘렸다.

전남대도 일회성 해외연수를 즐기는 등 각종 예산을 재점검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늘렸다. 또 지방 유학생이나 자취생들의 생활비 절감을 위해 기숙사 안에서 취사가 가능한 생활관을 개설해 학생들이 한 학기당 60만원(고시원 기준 120~150만원)만 내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족들도 동반 입주가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지역대학들은 이와 함께 취업 및 창업 동아리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조선대는 주로 3·4학년들로 이뤄진 '취업준비반'에 기업체 인사담당자나 취업 선배들을 특강 형태로 참여시켜 상담 및 지원을 강화했다. 광주대와 광주여대 등도 취업동아리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는 학생들의 노력도 눈물겹다. 대학마다 학내 아르바이트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거나 주말 및 휴일을 이용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전남대가 최근 357명의 근로장학생을 모집한 결과, 1천100여명이 몰려 3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을 비롯해 대학마다 학내 아르바이트 신청자가 넘쳐나고 있다.

호남대학교 관계자는 “어느 대학 할 것 없이 경제난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어떻게... 전남도의회 27일 임시회 제출 민노당 광주시당도 제정 운동

고액 등록금과 학자금 고금리 대출이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양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 제정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도의회 고송자 의원(민노당·비례)은 6일 전남도와 시·군이 기금을 출연해 전남지역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남도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마련, 이날 말 임시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다.

고 의원은 “저금리가 시대에 학자금 대출금리는 7.3%에 이르고, 저소득 가정에 지원하는 저리 1·2종 역시 각각 3.3%, 5.8%에 달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자를 못내 학업을 포기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남 인구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도의회는 오는 10일까지 최종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27일 제240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시에서도 조례 제정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민노당 광주시당은 21C광주전남대학생연합, 민주노총 등과 함께 ‘조례 제정 광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이날 중 광주시의회와 조례 제정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목포해양대 총장선거 4파전

추병직 전 장관의 임용이 무산돼 공석인 목포해양대 총장 재선거가 4명의 후보자가 등록한 가운데 오는 16일 치러진다.

목포해양대 총장임용추진위원회

는 지난 2~3일 후보자 신청인 등록을 한 결과 박중순(기관시스템공학부), 최주영(기관시스템공학부), 안영섭(해상운송시스템학부), 장성기(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 등 4명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햇볕 06시 11분 해질 18시 58분 달돋음 16시 40분 달짐 04시 32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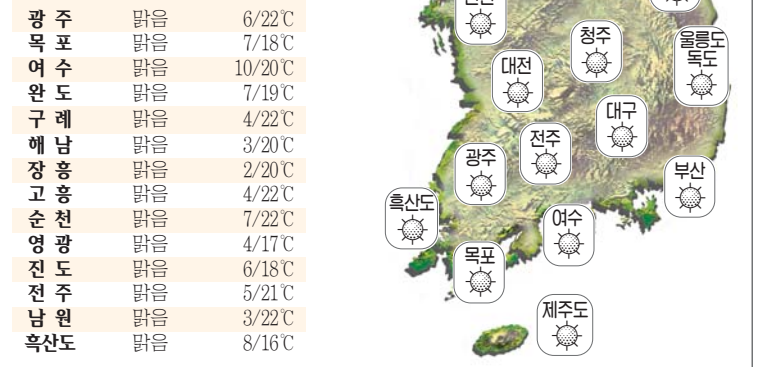


Table with 5 columns: Location, Wind, Rain, Fog, and Temperature. Rows include Jeonju, Gwangju, and others.

Table with 7 columns: Day, Night, High/Low, and Moon phases. Rows include Jeonju, Gwangju, and others.

지리산 새끼 반달곰도 숨진채 발견

최근 폐사한 지리산 어미 반달곰 숨진 새끼 반달곰도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새끼 반달곰은 지난 3일 어미가 발견된 자리에서 15m 정도 떨어진 암벽

하단부에서 발견됐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이배근 팀장은 “폐사한 어미 곰이 새끼곰을 돌보지 못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이 6일 무안군 남악 신청사에서 첫 업무를 시작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 새 청사 첫 업무

김장환 도교육감 “새 도약 발판으로”

전남도교육청의 ‘남악시대’가 개막됐다. 전남도교육청은 6일 무안군 남악신도시의 새 청사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전남도교육청이 광주시대를 접고 남악시대를 연 것은 광주시 북구 매곡동 청사 이후 27년, 1962년 광주 동명동 청사 개청 이후 47년 만이다. 민원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첫 업무를 개시했다.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은 새 청사에서 열린 첫 간부회의에서 “남악 신도시로의 청사 이전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자”며 “단순한 청사 이전 차원을 넘어 지역민과 지역사회에 더 가깝게 다가가고 진일보된 전남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새 청사는 전남도청 옆 부지 3만3천661㎡에 전체면적 1만5천701㎡,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378억원이 투입됐으며 2006년 11월 착공해 2년 5개월 만에 준공됐다.

외부 모습은 날아오르는 새의 날개 형상으로, 세계와 미래로 응비(雄飛)하는 전남교육의 지표를 표현하고 있다.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등 지능형 빌딩시스템(IBS)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률과 민원인 편의를 극대화했고, 태양광발전시설을 활용한 절전형 건물로 꾸며졌다.

신청사의 정식 개청식은 이전 작업을 모두 마무리한 뒤 내달 초에 가질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연구중심대학 육성’ 과제 1단계 심사

전남대 8개 선정...전국 1위

2차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 World Class University) 육성 사업’ 과제에 대한 1단계 심사평가 결과 전남대의 과제 수가 8개로 연세대와 함께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일 발표한 WCU 1단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총 44개 대학 139과제 중 28개 대학 75개 과제를 2단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전남대는 이중 8개 과제가 선정됐다.

특히 전남대는 신청과제 9개 가운데 8개가 선정돼 타 대학에 비해 선정률(89%)도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심사평가를 통과한 총 75개 과제는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 현지에서 해외 전문가 교수 116명이 참가한 가운데 2단계 해외 동료평가를 받게 되며, 교과부는 오는 17일 3단계 국내 종합패널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차 WCU사업은 1차 사업에서 선정이 적었던 인문사회 분야와 지방단위 과제를 주요 대상으로 전공·학과 신설 지원과제와 개별화 초빙 지원과제만 선정한다.

이와 함께 광주과학기술원은 2개 과제, 조선대는 1개 과제가 각각 선정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정광학원 교장 해임하라”

전교조 광주지부

전교조 광주지부는 6일 “정광학원은 교사채용 비리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이 요구한 교장 2명에 대한 해임처분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광학원 이사회에서 ‘교장 바꾸기 인사’ 일색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교조 조합원 1명만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었다”면서 “현 조합원으로 징계위원회를 진행한다면 이사장은 징계대상자와 징계를 논의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광주지부와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날부터 정광교 정문 앞에서 해임 징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박진표기자 lucky@

Large advertisement for '정광학원' (Jeonggwanghakwon) featuring cartoon characters and the text '광고 제 짝을 만나고 있습니까?' (Do you meet your perfect match for advertising?).